

## 근본 지혜를 얻으라

잠언 1:1-9, 고린도전서 1:18-24

최정웅 목사님

2018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다.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2018년을 시작하려고 한다.

잠언은 글자 그대로 지혜의 말들이라는 뜻이다.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으로 설명한 것들을 모은, 격언집 같은 것이다. 잠언을 매일 읽는 가정도 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는 가정들이 있다.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은 아닌데, 제대로 알고 읽지 않으면 율법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쉽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능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율법으로 빠져 버린다.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한다. 복음의 근본을 놓치고 보면, 잠언은 특히 '뭘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하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 버린다. 잠언의 목적은 율법이 아니다. 참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그 참된 지혜는 사실은 복음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잠언 첫 시간의 주제다.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 삶도 전부 변하게 되어 있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삶을 치유하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다. 기능 서밋으로 갈 수 있다. 문화 서밋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한다.

### 1. 세상은 참된 지혜를 놓쳐서 재앙에 빠지게 되었다.

첫 번째 주제다.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참된 지혜를 놓쳤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1) 지금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있다. 지식도 지혜도 풍성한 것같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 많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신문이나 영상을 보면, 최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최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최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 땅에 저주를 가지고 온다. 디모데후서 3:1을 보면, 갈수록 세상이 고통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가면 갈수록 그렇다.

(2)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세상이 그 지혜를 놓치고,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잠언 1:7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이다. 창세기 1:27-28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이다. 이게 인간의 불행이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먹어버린 것이다. 마귀가 와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 버렸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않나.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저주, 고통이 오게 된 것이다. 참된 지혜를 잃고 잘못된 것으로 채우게 된 것이다.

(3) 하나님을 떠난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 완전히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 시편 14:1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로마서 1:22-23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욱 어리석어져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형상을 섬기고, 사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4) 결국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를 얻겠다고 하다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 대신 자기 중심, 영적 지혜 대신 육신 중심, 영적 축복 대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지혜를 총동원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찾다니며 그 문화에 빠지게 되었다. 근본문제, 이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지혜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골로새서 2:8에 보니까 세상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고 했다.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개똥철학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없다. IQ가 145, 150 되는 사람들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제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게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 2.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의 비밀을 주셨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지혜를 놓치고 완전히 어리석게 된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의 비밀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내용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근본 지혜를 붙잡고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1) 잠언 1:7은 잠언 전체의 주제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할 주제 성경구절이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1월 7일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란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참된 삶의 길이로 지혜의 길이로, 그것을 버리면 망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주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한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근본 지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이다.

(2)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피를 내고 생각을 할수록 악에 빠진다. 꼭 수를 써도 망하는 수를 쓴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해 보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 이번 기회를 잡아서 영원히 부와 영광을 누리는 가문을 만들겠다 해서, 나라를 망치

고 스스로를 망치는 일을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1:21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살 길을 주셨다고 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3)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창세기 3:15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사야 7:14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시편 16:9-11에서는 부활하여 승리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신 것이다.

(4)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다. 이 사역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 해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 공의와 사랑은 모순될 수밖에 없는데, 모순되지 않도록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신학이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로마서 5:8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거기에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역할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나 하는 것이다.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처벌을 받는 것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만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이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 금목걸이를 아무리 달고 다녀도 소용이 없다. 그 마음이 없이는 하고 다니는 게 맞지 않다. 요한복음 19:30에 주님은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아무 답이 없는데 지혜가 있을 수 없지 않다. 그런데 완전히 해결해 버렸으니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

(5)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골로새서 2:2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그 안에 있다고 했다. 마태복음 16:13-20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다. 빌립보서 3:7-8에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다. 혈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마16:17). 그만큼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 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지혜있는 사람이다. 이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바울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서 11:33에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어.”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네. 다 알았다’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않는다. 로마서 16:27에, “지혜

로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24에 보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2:2-3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지혜를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시기를 축복한다. 체험하시기를 바란다. 날마다 깊이 누리시기를 바란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란다. 오늘 주제가, 근본적인 지혜를 정말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 모든 문제는 정말 끝이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지혜를 찾으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멸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바벨탑 쌓다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면 꼭 그렇게 된다.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다 하고 바벨탑을 쌓는다.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것이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디모데후서 3:15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잡아야 되겠다. 멸망하는 지혜 대신에 재앙이기는 지혜를 선택해야 되겠다.

잠언 18:10에,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땅대라고 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으리라고 했다. 누가 의인인가?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다.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뿔으로 뱀을 만들고는 “저것 바라봐라, 그러면 낫는다.” 현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겠는가? “미친 놈,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는 뱀에 물려 죽게 만들어놓고는 뭐, 저런 걸 바라보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그래요?” 하고 쳐다본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 동물, 식물은 다 살았다.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사는 것이다. 이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잠언 19:23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외하는 자는 죽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을 붙잡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요한복음 5:24에 말씀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을 막지 못하는 지혜를 의지하는 수준을 빨리 벗어나라. 재앙 막는 근본 지혜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근본 지혜를 붙잡아라. 근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한 해 동안,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 해를 사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다른 것 붙잡으려 하다가 함정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본 지혜를 붙잡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